'화끈한 페퍼스' 광주 팬들 마음 사로잡았다

끈기·투지·패기 넘치는 플레이
KGC인삼공사에 첫세트 따내
엘리자벳 공격·하혜진 호수비
예상보다 강한 전력 관중들 환호

AI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열린 KGC인삼공사와 경기에서 득점한 후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최약체'로 평가받던 여자 프로배구 신생팀 AI페퍼스가 끈기와 투지, 패기로 '화끈한 매운맛'을 보여줬다.

AI페퍼스는 19일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홈 경기에서 KGC인삼공사에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세트 스코어 1-3(25-16, 20-25, 21-25, 17-25).

당초 이번 경기에서 AI페퍼스는 1세트를 따기도 어려울 거란 예상이 중론이었다.

KGC인삼공사는 이소영·염혜선·박은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3명을 포함해 베테랑이 포진한 데 비해 AI페퍼스는 특별한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 팀 결성도 5개월밖에 안 됐으며, 전국체전에 참가한 신인 선수 6명이 지난 14일 복귀해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5일밖에 안 됐다.

하지만 AI페퍼스는 엘리자벳의 화끈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리시브·디그, 열정적인 수비로 역사적인 첫 세트를 따내는 등 선전했다.

'외국인 드래프트 1순위' 엘리자벳은 유감없이 실력을 입증했다. 22득점을 올린 엘리자벳은 양 팀 합해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1세트에서만 2번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등 활약했다.

노련한 하혜진의 호수비도 돋보였다. 원래 라이트인 하혜진은 이날 임시 센터로 포지션을 바꿔 출전했다. 하혜진은 0-1에서 상대 센터 한송이의 오픈 공격을 블로킹해 첫 득점을 올렸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도 "기대 이상으로 해 줬다. 블로킹을 한 게임, 한 세트에 한 선수가 하나씩만 잡으라고 주문했었다. 하혜진이 경험 있는 선수로서 블로킹을 5번 잡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인삼공사도 기세등등한 AI페퍼스에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인삼공사는 1세트에서 범실 7개를 쏟아내며 고전했다.

2세트 이후로 침착함을 되찾은 인삼공사에게 연속 3패를 내주긴 했지만, AI페퍼스는 꾸준히 점수차를 좁히며 압박을 가했다. 3세트에서는 엘리자벳이 재치 있는 다이렉트킬까지 성공시키며 21-21까지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AI페퍼스는 무엇보다 공을 놓지 않는 끈질긴 수비로 눈길을 끌었다.

이한비는 4세트 3-3에서 수비에 잘못 맞은 볼이 사이드라인을 넘어간 채 상대 네트 너머로 흐르자, 끝까지 달려들어 볼을 살려냈다. 이어 엘리자벳이 강력한 스파이크로 득점까지 연결시켰다. 이같은 장면이 이후로도 수 차례 이어졌고, 그 때마다 관중석에서도 열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김 감독이 경기 전 주문했던 "최선을 넘어 전력을, 사력을 다 하라"는 주문이 선수들에게 녹아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김 감독은 경기 이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 부족했다. 연습이 부족했다"며 "만족하진 않지만, 선수들이 화이팅하며 근성있는 수비를 보여주는 등 열심히 잘 해 줬다. 다음에는 더 나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볼을 끝까지 포기 안하고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선수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 이렇게 한 세트, 한 게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AI페퍼스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GS칼텍스와 홈 2차전을 치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황대인, 홈런 치는 법을 깨달았나 …

최근 5경기에서 2개 홈런 펑펑
"감독님 말씀 이제야 이해 된다"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고 이야기했고 황대인은 "이제야 감독님의 말씀이 이해된다"고 웃었다.

KIA 황대인의 방망이가 뜨겁다. 황대인은 20일 경기 전까지 최근 5경기에서 20타수 8안타 0.400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2개의 홈런으로 6타점도 올렸다. 특히 이 홈런 두 방은 팀의 승리를 부른 역전 스리런이었다.

16일 두산전에서는 3-4로 뒤진 5회초 2사 1·2루에서 황대인의 홈런이 기록됐다.

상대가 최형우를 거르고 황대인과의 승부를 선택했지만, 결과는 잠실 좌측 담장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이었다. KIA가 그대로 6-4의 리드를 지키면서 황대인의 결승타가 기록됐다.

19일 SSG와의 홈경기에서는 1-3으로 뒤진 3회 무사 1·2루에서 좌측담장을 넘기며 4-3을 만들었다. KIA는 이후 최정의 통산 400홈런으로 동점을 허용했다가 5-4로 다시 승부를 뒤집고, 4강 순위 싸움 중인 SSG의 발목을 잡았다.

팀의 승리를 부른 홈런은 황대인 개인에게도 의미가 많은 홈런이다. 16일 역전 스리런을 통해 황대인은 프로 7번째 시즌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황대인은 경험을 통해 윌리엄스 감독이 강조했던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황대인에게 '꾸준함'을 이야기 했었다. 그러면서 '홈런을 위한 홈런이 아닌 안타를 위한 홈런'을 강조했다.

황대인

19일 경기 전에도 "꾸준함이 황대인의 키다. 많은 어린 선수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좋은 궤적을 가지고, 좋은 안타를 치려고 하는 게 홈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이날 황대인은 자신의 11번째 홈런을 장식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강조했던 부분을 이해하면서 만든 홈런이다.

황대인은 20일 "홈런을 치려고 하기보다는 가볍게 친다는 생각으로 상황별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데 홈런이 나온다. 굳이 세게 치려고 한다고 해서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다"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야 플라이를 치자는 생각으로 쳤다. 그런 배팅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시즌 초반에는 홈런 쳐야겠다 하니까 삼진도 많이 나오고, 실투도 많이 놓쳤는데 많이 바뀐 것 같다. 경험도 쌓이고, 경기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좋아졌다. 노림수도 생기고, 큰 것보다는 안타를 생산하려고 한다"며 "감독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가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잘못했다. 경기를 많이 나가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다"고 달라진 부분을 언급했다.

상황에 맞게 홈런 치는 법을 깨달은 황대인을 보는 윌리엄스 감독의 시선도 달라졌다.

윌리엄스 감독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빨리 먹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게 아이들의 심정이다. 그러다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황대인은 딱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다"며 "타석수를 채우고 경험을 쌓으면서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될 것 같다. 음식을 즐겨도 된다는 것을 깨달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대인은 남은 시즌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12홈런의 최형우를 넘어보겠다는 각오다.

황대인은 "어제 홈런 치기 전에 수비에서 실수가 있었다. 다카하시에게 미안했다. 홈런 치고 미안하고 말했는데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해줬다. 그런 수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 잘 해야될 것 같다"며 "10홈런이 꿈이었는데 목표를 이뤘다. 10홈런 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1년 차부터 시행착오도 많았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시즌에서 팀이 승리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싶고, 내년 시즌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해야겠다. 또 선배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꼭 최형우 선배님을 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리오넬 메시(PSG)가 20일 라이프치히와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 PSG 이적 후 첫 멀티골

챔스 조별리그 A조 3차전
라이프치히전 3-2 승리 이끌어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리오넬 메시의 첫 멀티골을 앞세워 라이프치히(독일)를 꺾었다.

PSG는 2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라이프치히와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음바페의 선제골과 메시의 두 골을 엮어 3-2로 이겼다. 조별리그 2연승을 포함해 2승 1무로 승점 7이 된 PSG는 A조 1위를 지켰다.

PSG는 전반 9분 음바페의 골로 포문을 열었다. 역습과정에서 율리안 드락슬러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중원을 가로질렀고,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로는 라이프치히의 공격이 살아났다.

전반 28분 앙헬리뇨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반대쪽으로 넘긴 크로스를 안드레 실바가 받아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터트렸다.후반 12분에는 또 한번 앙헬리뇨의 패스를 받은 노르디 무키엘레가 역전골을 터트렸다. PSG는 순식간에 1-2로 끌려갔지만, 메시와 음바페가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22분 음바페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뒤로 달려 들어오는 메시에게 짧은 패스를 내줬고, 메시가 이를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해 균형을 맞췄다.

7분 뒤에는 메시의 페널티킥 결승골이 나왔다.

음바페가 상대 페널티 지역으로 돌파하다 페널티킥을 얻었고, 키커로 나선 메시가 왼발 파넨카킥으로 재역전을 이끌었다.

메시는 이로써 8월 PSG 유니폼을 입은 뒤 정규리그 득점 없이 UCL에서만 3골을 터트렸다.

지난달 29일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맨시티)와 2차전에서 데뷔골을 넣은 데 이어 이날 이적 후 첫 멀티골을 작성하며 대회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